


연구보고서 제2018-4호

충북사회복지 Re-연구 제19호

충북도민 주관적 삶의 질 만족도 조사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01 서론

1. 주제 : 충북도민 주관적 삶의 질 만족도 조사

지역 균형 발전 및 지자체별 복지 수준 인식을 위한 지역사회보장지표 중, 각 지자체별로 주관적 삶의 질 만족도에 대한 사회조사 실행 필요

2. 근거

근거법령 : 「사회보장기본법」 제36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
 ② 지역사회보장의 목표를 점검할 수 있는 지표(지역사회보장지표)의 설정 및 목표

3. 설문개요

- 연구주제 : 충북도민 주관적 삶의 질 만족도 조사
- 연구목적 : 지역균형발전 및 지자체별 복지 수준 인식을 위한 지역사회보장지표 중, 각 지자체별로 주관적 삶의 질에 대한 사회조사 실행 필요
- 설문기간 : 2018. 8. 9.(목) ~ 8. 24.(금) 총 15일
- 설문대상 : 충북도내 거주 도민 234명
- 설문방법 : 온라인(E-mail, SNS, 문자) 및 오프라인(설문지) 병행조사

02 연구결과

1. 설문대상자 인구학적 특성 (234명)

1) 지역

충부권					남부권			북부권		
청주시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38명 (16.2%)	20명 (8.5%)	20명 (8.5%)	10명 (4.3%)	15명 (6.4%)	20명 (8.5%)	28명 (12%)	15명 (6.4%)	28명 (12%)	27명 (11.5%)	13명 (5.6%)
103명(44%)					63명(26.9%)			68명(29.1%)		



2) 연령 및 성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44명 (22.3%)	60명 (25.6%)	68명 (29.1%)	37명 (15.8%)	25명 (10.7%)

여성	남성
133명 (56.8%)	101명 (43.2%)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성별 합계
여성	20명 (8.6%)	31명 (13.2%)	43명 (18.4%)	23명 (9.8%)	16명 (6.8%)	133명 (56.8%)
남성	24명 (10.3%)	29명 (12.4%)	25명 (10.7%)	14명 (6.0%)	9명 (3.8%)	101명 (43.2%)
연령 합계	44명 (18.9%)	60명 (25.6%)	68명 (29.1%)	37명 (15.8%)	25명 (10.6%)	234명 (100.0%)

2. 연구결과 요약정리



본 결과는 충북도민 23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어 충북전체로 일반화할 수 없으며,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연구 배경 및 연구 개요

연구 배경

- 지역 균형 발전 및 지자체별 복지 수준 인식을 위한 지역사회보장지표 중, 주관적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 조사 필요

연구 개요

- 연구대상 : 충북도민 234명
- 표본추출 : 임의표본추출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5.66%

충북도민 주관적 삶의 질 만족도 조사

육구충족 만족도

3.3점(5점만점)

60대 3.21점 가장 낮음

- 충북도민 육구충족 만족도 '긍정' 39.3%, '부정' 13.3%
- 충북도민 육구충족 만족도 평균 3.3점(5점 만점)
- 20대 3.42점으로 가장 높고, 60대 3.21점으로 가장 낮음

주관적 삶의 질 만족도

6.76점(10점만점)

60대 5.98점으로 낮음

- 충북도민 주관적 삶의 질 만족도, 평균6.76점(10점 만점)
- 20대 6.97점으로 가장 높고, 60대 5.98점으로 가장 낮음
- 삶의 질 만족도는 육구충족 만족도와 상관관계 있음

충북지역평균거주

26.8년

계속거주의향 65%

- 충북지역 평균 거주 년 수 26.8년
- 타시도(경기도, 2016) 평균 거주 년 수 19.4년
- 충북지역 향후 거주 의향 '긍정' 65%, '부정' 9.4%

분야별 만족도 점수

'주택' 5.68점 높음

'문화' 4.99점 낮음

- 충북도민 분야별 만족도 점수, '주택' 5.68점으로 가장 높음
- '문화' 4.99점으로 만족도 점수 가장 낮음
- 20대 '주택', 30대~50대 '문화', 60대이상 '주택' 가장 만족

충북 균형 발전 점수

3.09점(5점만점)

긍정 30.7%, 부정26.1%

- 충북지역 균형 발전 여부 '긍정' 30.7%, '부정' 26.1%
- 충북지역 균형 발전 점수, 평균 3.09점(5점 만점)


3. 세부 연구결과

1) 충북도민 육구 충족 만족도

단위 : 명, %

질문 1. 귀하께서는 현재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충분히 충족하고 계십니까?

구 분	결 과	
매우 그렇다	13명	5.6%
그렇다	79명	33.7%
보통이다	111명	47.4%
아니다	28명	12 %
매우 아니다	3명	1.3%
합계	234	100.0%



Yes

긍정
39.3%



OR



N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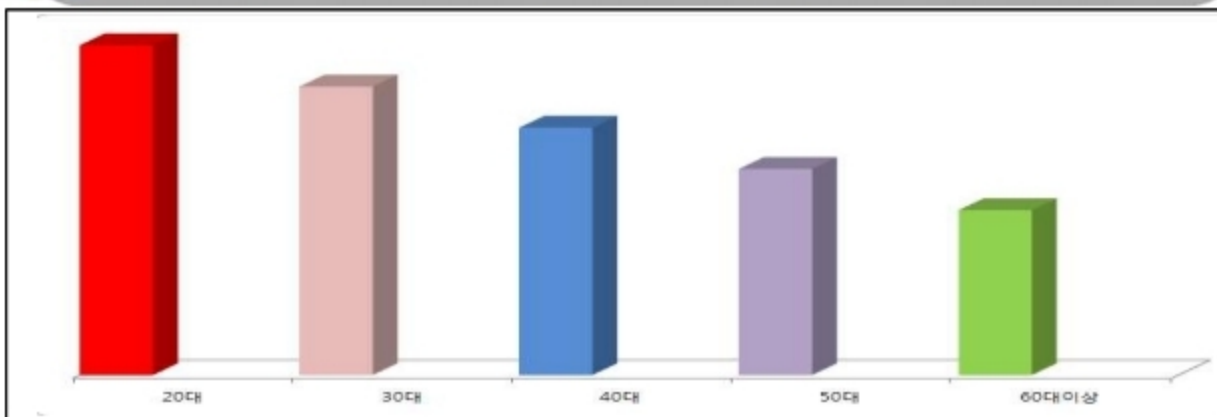
부정
13.3%

※ '보통'으로 응답한 111명 제외

충북도민에게 현재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충분히 충족하고 있는지 묻는 물음에 그 결과 '매우 그렇다'는 응답은 13명(5.6%), '그렇다' 79명(33.7%), '보통이다' 111명(47.4%), '아니다' 28명(12%), '매우 아니다' 3명(1.3%)으로 나타났다. '보통이다'라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 응답을 제외하고 긍정적인 의견은 92명(39.3%), 부정적인 의견은 31명(13.3%)으로 2017년 연구조사와는 다르게 긍정적인 의견이 3배 정도 더 높았다. 또한 위와 같은 결과를 5점 척도로 환산하면, 3.3점으로 나타났다.



1. 육구 충족 만족도 20대가 가장 높으며, 60대 이상이 가장 낮음으로 나타났다.



- 육구충족 만족도를 연령에 따라 재분석해 본 결과, 20대 3.42점, 30대 3.34점, 40대 3.31점, 50대 3.22점, 60대 3.21점으로 나타남.
- 20대가 가장 높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만족도가 점점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

2) 주관적 삶의 질 만족도

단위 : 명, %

질문 2. 귀하께서는 현재 자신의 삶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구 분	결 과	
1점	1명	0.4%
2점	-	-
3점	4명	1.7%
4점	11명	4.7%
5점	32명	13.7%
6점	51명	21.8%
7점	54명	23.1%
8점	55명	23.5%
9점	20명	8.5%
10점	6명	2.6%
합계	234명	100.0%

충북도민 주관적 삶의 질 만족도 점수
6.76점
(10점 만점)

V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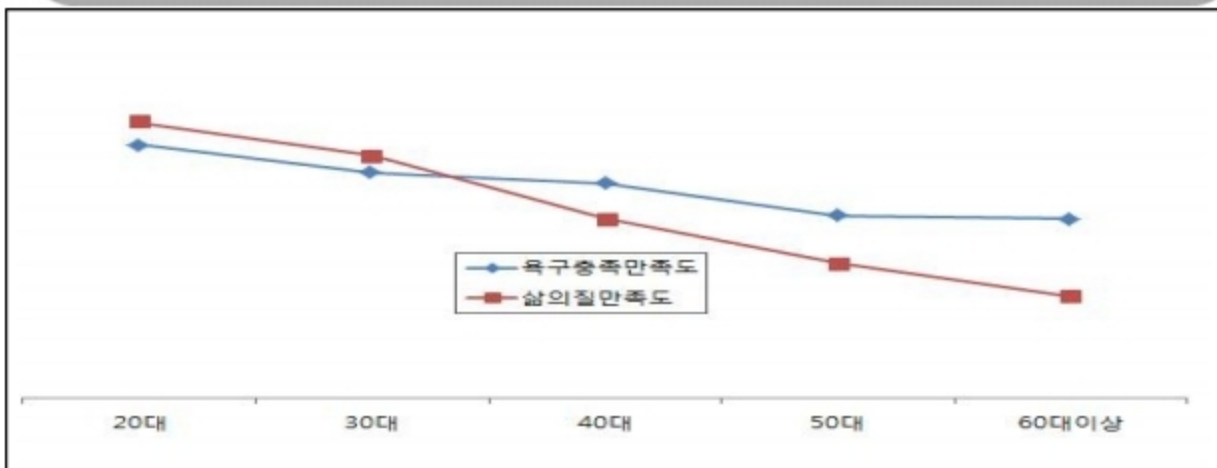
전국의 주관적 삶의 질 만족도 점수
6점
(한국행정연구원, 2017)

충북도민에게 현재 자신의 삶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 결과 '1점' 1명(0.4%), '2점' 0명(0%), '3점' 4명(1.7%), '4점' 11명(4.7%), '5점' 32명(13.7%), '6점' 51명(21.8%), '7점' 54명(23.1%), '8점' 55명(23.5%), '9점' 20명(8.5%), '10점' 6명(2.6%) 이었다.

위와 같은 결과를 10점 척도로 환산하면 6.76점이며, 전국의 경우 6.0점(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2017)으로 충북이 전국의 평균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2. 삶의 질 만족도는 욕구충족 만족도와 상관관계가 있으며, 20대가 가장 높음.



□ 욕구충족 만족도를 10점 척도로 환산하여 삶의 질 만족도와 비교해본 결과, 욕구충족 만족도와 삶의 질 만족도가 깊은 상관관계를 보임. 즉, 욕구충족 만족도가 높으면 삶의 질 만족도 높음.

3) 충북 거주 기간

단위 : 년, 개월

질문 3. 귀하께서 충북지역에 얼마나 거주하셨습니다?

충북 평균 거주기간 수	타 시도 평균 거주기간 수	최소 거주기간 수	최대 거주 기간 수
26.8년	19.4년 (경기도, 2016)	4개월	70년

충북지역에 얼마나 거주하였는지를 묻는 질문에 충북의 평균은 26.8년으로 나타났다. 이를 타 시도와 비교하여 보면, 경기도의 경우, 19.4년(경기도민 삶의 질, 2016)으로 충북이 경기도보다 7.4년 정도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의 경우 최소 거주 기간은 4개월이며, 최대 거주기간은 70년으로 나타났다.

4) 향후 충북지역 거주 의향

단위 : %, 명

질문 4. 귀하께서는 앞으로도 충북지역에 계속 거주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구 분	결 과	
매우 그렇다	43명	18.4%
그렇다	109명	46.6%
보통이다	60명	25.6%
그렇지 않다	19명	8.1%
매우 그렇지 않다	3명	1.3%
합계	234명	100%



Yes OR No

긍정 부정

65% 9.4%

※ '보통'으로 응답한 60명 제외

앞으로도 충북지역에 계속 거주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 43명(18.4%), '그렇다' 109명(46.6%), '보통이다' 60명(25.6%), '그렇지 않다' 19명(8.1%), '매우 그렇지 않다' 3명(1.3%)으로 나타났다.

5) 충북지역 각 분야 만족도

단위 : 점(순위)

질문 3. 귀하께서 느끼는 충북지역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10점 만점)

분야	전체만족	교통	교육	의료	안전	주택	문화
충북	5.79점	5.06점 (4)	5.50점 (3)	5.01점 (5)	5.60점 (2)	5.68점 (1)	4.99점 (6)
전국 (지역주민 삶의 질 조사 2016)	5.9점	6.23점 (2)	5.78점 (6)	5.93점 (4)	6.34점 (1)	5.88점 (5)	5.99점 (3)

충북지역의 분야별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1위는 '주택' 5.68점, 2위 '안전' 5.60점, 3위 '교육' 5.50점, 4위 '교통' 5.06점, 5위 '의료' 5.01점, 6위 '문화' 4.99점 순이었다.

이를 전국과 비교하여 볼 때, 눈여겨 볼만한 점은, 충북의 경우 교육 분야가 6.17점, 3위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반면, 전국의 경우에는 5.78점, 6위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나타냈다는 점이다. 또한 충북의 경우 문화 분야가 4.99점으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이는 반면, 전국의 경우에는 5.99점, 3위로 상위권 점수를 보인다는 점이다.



3. 20대는 '주택', 30대~50대는 '안전', 60대 이상은 '주택' 분야에 만족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1위	주택 (5.34점)	안전 (5.32점)	안전 (5.65점)	안전 (5.61점)	주택 (5.45점)
6위	의료 (4.89점)	문화 (4.91점)	문화 (5.03점)	문화 (5.13점)	문화 (5.26점)

- 분야별 만족도 결과를 연령별로 재분석해 보면, 20대는 '주택', 30대~50대는 '안전', 60대 이상은 '주택'에 가장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20대는 '의료', 30대~50대 이상은 '문화'에 대해서 가장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6) 충북지역 균형 발전 정도

단위 : %, 명

질문 6. 충북은 각 지역이 골고루 균형 있게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결 과	
매우 아니다	14명	5.9%
아니다	58명	24.8%
보통이다	101명	43.2%
그렇다	58명	24.8%
매우 그렇다	3명	1.3%
합계	234명	100%




Yes

긍정

30.7%

OR



No

부정

26.1%

※ '보통' 으로 응답한 101명 제외

충북 지역이 골고루 균형 있게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매우 아니다' 14명 (5.9%), '아니다' 58명(24.8%), '보통이다' 101명(43.2%), '그렇다' 58명(24.8%), '매우 그렇다' 3명 (1.3%)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를 5점 척도로 환산하여 보면, 3.09점으로 나타난다.